

중랑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중랑구의회(의장 김근종) 제186회 임시회가 지난 3월 19일 개최되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3월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전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이어, 마지막 날인 3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김규환 부의장은 제3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구청 공무원들에게 “금년에 추진할



김규환 부의장 회의 주재

각종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랑구의회, ‘중랑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업무보고 청취



〈 CCTV 통합관제센터를 둘러 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의원들 〉

중랑구의회(의장 김근종) 전체 의원들은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달 19일 구청 3층에 위치한 ‘중랑구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센터)’를 찾아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센터 운영에 관한 다양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센터를 추진하게 된 경위와 구축현황, 인력현황, 전국 최초 레이더 추적 시스템 개발 사례 등과 향후 운영상 문제점, 대주민 홍보 계획, 기대효과 등을 보고 받았다. 이어, CCTV를 활용해 범인을 잡는 내용을 담은 공중파 뉴스를 동영상으로 시청했으며, 향후 유지보수 및



〈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김근종 의장 〉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질의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당부를 하고 센터 곳곳을 둘러보았다. 센터를 살펴본 김근종 의장은 “CCTV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정상황이 열악한 우리구의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하고, “우리구 갑·을지역 국회의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CCTV 설치 특별교부금이 많이 확보됐다”며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들도 국회의원, 시의원들과 계속적으로 노력해 국·시비 확보 등 중랑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김수자 의원 발의... 만장일치 채택



김수자 의원
(망우본동, 신내1동)

중랑구의회는 3월 19일 열린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수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북한의 핵실험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정부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부와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적극적 문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랑구의회 의원, 조례 제·개정으로 역할 톡톡



이윤재 의원
(목1동, 목2동)



김수자 의원
(망우본동, 신내1동)



나도명 의원
(상봉1동, 신내2동)

제186회 임시회에서 이윤재 의원이▶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수자 의원이▶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나도명 의원이▶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안을 발의해 관련 조례가 제·개정 되었다. 이윤재 의원은 전용용기 수거로 영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20리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조례 내용에서 삭제하여 종류별로 비치하여야 하는 봉투판매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집행부에 남아 있는 재고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김수자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 사항 중 현장방문 규정을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시켜 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 하고자 함을, 나도명 의원은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구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각각 제·개정이유로 밝혔다. 위의 3개 조례는 제3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달 26일 최종 가결 처리되었다.

제186회 임시회에서 이윤재 의원이▶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수자 의원이▶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나도명 의원이▶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안을 발의해 관련 조례가 제·개정 되었다. 이윤재 의원은 전용용기 수거로 영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20리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조례 내용에서 삭제하여 종류별로 비치하여야 하는 봉투판매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집행부에 남아 있는 재고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김수자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 사항 중 현장방문 규정을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시켜 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 하고자 함을, 나도명 의원은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구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각각 제·개정이유로 밝혔다. 위의 3개 조례는 제3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달 26일 최종 가결 처리되었다.

중랑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소자본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강구해야
- 인구감소 분석 등 총체적 거버넌스 재점검해야

이윤재 의원(묵1동, 묵2동)

이윤재 의원은 “소자본 창업강좌가 선착순 접수로 타 지역민들에게도 기회를 주다 보니 우리 지역민들의 강좌 신청이 어렵다”고 말하고 “창업교육 인원의 20%를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창업을 위한 자금 대출도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65세 이상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중랑구 인구 감소에 따른 원인분석, 저출산대책,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이유, 교육 인프라 등 중랑구의 총체적 거버넌스(관리체계)를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제설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 제거에 관심을 가져야

김규환 의원(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김규환 의원은 “지난 겨울은 폭설이 많이 내려 다른 해 겨울보다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염화칼슘은 겨울철 빙판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자 노릇을 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금속의 부식을 촉진함은 물론 토양과 수질오염으로 가로수, 잔디 등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겨우내 뿌려졌던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화제가 섞인 물을 반복적으로 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인력과 시간,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구청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용마터널 진출입로, 주민 편익 높이는 방안 모색해야

신정일 의원(면목4동, 면목7동)

신정일 의원은 “용마터널 건설사업은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정작 주변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없다”며, “현재의 구조라면 주변 주민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만 용마터널에 진입할 수 있으며 터널이 개통되면 사가정사거리의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고 말하고 “왜 가까운 곳을 두고 내려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기술적 검토를 하여 별도의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서울시와 재협상을 해서라도 주민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 면목3-1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해제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이영실 의원(면목3·8동, 망우3동)

이영실 의원은 “면목3-1구역이 지난 해 재개발 해제가 되었는데 면목동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며 “계속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주민대표, 국회의원, 서울시 관계자 등과 해결점을 찾던 중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서울시에서는 이미 자치구로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우선적 사업대상지로 발굴하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하니 구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사업 진행이 조속히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펴야

서인서 의원(면목4동, 면목7동)

서인서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공무원 사회의 인사 이동 때마다 나오는 말로 그만큼 인사행정은 중요하고 공무원과 공공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와 관련된 비리가 터져나오고 이런 인사관련 비리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개입, 무원칙의 정실 인사, 이로 인해 승진 등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줄서기에서 비롯된다”며, “공무원들의 사기충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체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고, 중랑구도 잘못된 인사 행태로 인해 빈축을 살만한 사례들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 중랑발전을 위해 망우역 부지에 망우복합역사와 문화예술회관 건설해야

나도명 의원(상봉1동, 신내2동)

나도명 의원은 “국토해양부에서 행복주택 시범사업지로 신내동 차량기지와 망우역사 등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지구가 거론되고 있다”며, “신내1택지, 2·3택지 보금자리에 이어 임대아파트가 건설된다면 중랑구 일대는 임대아파트 지구로 전락될 것”이라고 말하고, “중랑구는 그동안 망우역 부지를 망우복합역사로 건립해 문화예술회관을 유치, 지역개발중심부로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며, “중랑구는 임대아파트 건설을 그만 두고 중랑발전에 꼭 필요한 역세권 복합개발과 망우복합역사, 문화예술회관 건설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상·임·위·원·회·소·식

중랑구의회(행정재경위원회)
중랑구치매지원센터 등 현장점검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영숙)에서는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달 21일 중랑구치매지원센터와 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를 차례로 현장 방문해 각 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관련 시설 등을 점검했다. 먼저, 면목5동에 위치한 중랑구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한 의원들은 센터관계자로부터 센터 운영 현황, 주요 추진사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센터내 프로그램실에서 종이접기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종이접기를 같이 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3월말 중랑구보건소에서 중랑구민회관 1층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중랑구정신보건센터’를 찾아 사무실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을 둘러보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또한 운영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며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중랑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
어린이집, 복지관 등 애로사항 청취위해 현장속으로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윤재)에서는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2일 면목종합사회복지관과 관내 어린이집 3개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현장 점검위주의 감시활동에서 벗어나 최근 정책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과 복지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복지관을 찾아 이들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잡고 더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함이다. 먼저,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한 의원들은 복지관 운영의 애로사항과 함께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이어 배식 도우미로 현장 봉사 활동을 펼쳤다. 다음으로 어린이집(3개소)에서는 최근 정책변경으로 인해 원아가 줄고 있는 어린이집의 어려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 및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